

##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꼈던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식



국립5·18민주묘지 입구 민중의 문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농성하고 있는 유가족



정부주관의 공식행사와 별도로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기념식 모습

올해는 3·15마산의거와 4·19혁명 50주년이 되는 해이고, 5·18광주민중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올해 3·15마산의거 50주년 기념식이 있었던 날, 마산은 아침부터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마산 3·15의거 유족께서 “정부 공식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지만, 아직도 원혼이 구천을 헤매고 있는가?”하며 한마디 하신다.

올해 4·19혁명 50주년 기념식이 있었던 수유리 국립 4·19민주묘지에는 아침부터 부슬 부슬 비가 내렸다. 5·18 광주민중항쟁 30주년 기념식이 있었던 광주 역시 비가 하염없이 내렸다.

광주민중항쟁 전야제 관련 깃발과 플래카드가 바람에 나부끼던 5월 17일 해가 질 무렵 광주 금남로에 비가 내리

기 시작했다. 빗속을 뚫고 하나 둘씩 금남로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 1,000여 명으로 조직된 풍물패, 취주악대, 깃발 부대 등이 금남로를 통해 구 도청 앞 분수대에 설치된 무대 주변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어서 행사 사회자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전야제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개회선언이 이어졌다. 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폭죽이 올라가고, 5·18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 선정과 관련된 사회자의 거센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5·18 전야제와 같은 행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가수 인순이가 80년 광주를 형상화한 자신의 노래가 금지곡이 된 사연을 밝히면서 노래를 했다. 518명 합창단의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으로 전야제를 마무리 했다. 출연자만

수천 명에 이르는 대규모 행사다.

전야제 행사를 마치고 근처를 지나던 여대생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생,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물어보니 “오늘은 성년의 날입니다”라고 새내기 대학생은 자신 있게 대답을 했다. 우문현답이다.

5월 18일에는 전날 저녁부터 오던 비가 더 거세게 퍼붓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둘러본 망월동 5·18국립묘지는 경찰버스로 완전히 포위된 형국이다. 망월동 구묘역에 들어서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선정이 배제된 것을 이유로 시민사회단체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기념식 준비상황을 지켜봤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를 만나 인사를 드렸다. 배은심 여사는 “5·18에는 해가 쨍쨍한 것보다 비가 와야 한다. 5·18은 슬픈 날이니까.” 하신다. 9시 40분경 국립5·18민주묘지 후문을 통해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식장으로 입장을 하고자 했지만, 철통경계중인 경찰병력이 가로 막아서 1Km이상을 돌아서 기념식장을 향해 갔다.

5·18민주묘지의 대문격인 '민중의문'에서 5·18 유가족들이 모여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농성을 하고 있었다. 유가족을 뒤로 하고 기념식장 입장 비표를 받아 입장을 하려는 데, 기념식장 쪽에서 개회를 선언하는 스피커 소리가 울려 퍼져온다.

갑자기 정부 주관 기념식장보다는 구묘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 행사가 궁금해 다시 구묘역으로 방향을 돌렸다. 구묘역을 향해 급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라는 표지가 붙은 버스가 5·18민주묘지로 들어오고 있었다. 기상문제로 비행기가 다소 지연된 것 같다. 구묘역에서 열리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에는 빗속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이 모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5·18기념사업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등의 현화가 있었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전야제

고 분노가 서려있는 기념사와 노래 등이 구묘역에 울려 퍼졌다.

1980년 봄은 무척이나 추웠다고 한다. 예년에 비해 기온이 낮아 냉해가 기승을 부렸다고 한다. 올해 봄도 예년에 비해 춥고,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 등 피해가 많았다. 정확히 30년 만에 다시 추워진 봄을 맞이하며, 1980년의 민주화운동 동지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금남로와 망월동에서는 각종 만장, 깃발, 현수막이 비에 젖어 나부끼고 있었다. 비에 젖은 카메라가 5월의 추위에 떨며 작동을 멈추자고 한다. (글·기획홍보실 송동현)

## 제8회 광주518청소년 민주주의 역사캠프

5월 21일 약 1달간 준비해 온 캠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작년 민주주의 현장체험에 참가한 가평군립도서관 학생들이 이제는 중학생이 되어 청소년 역사캠프에 참가했다. 이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알고 실천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나에게 좋은 벗이다.

가평에서 아침 7시 30분에 출발한 버스는 서울에 9시 30분경에야 도착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나는 준비해 온 짐을 버스에 싣고 부푼 꿈을 안고 광주로 향했다. 그러나 조금 지나지 않아, 우리 일행은 절망하기 시작했다. 명절날보다 많은 차량으로 인해 버스에서 9시간의 일정을 보내게 된 것이다.

철저히 준비한 많은 방문지와 프로그램들이 하나 둘씩 취소되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 친구들이 광주에 가면 꼭 봐야 할 곳 2군데는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킬 수 없었다. 바로 국립5·18민주묘지와 구 전남도청 및 금남로가 바로 그 곳이다. 국립5·18민주묘지에 저녁 7시 가까이 되어서 도착했다. 버스 안에서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해 협조를 구하고 또 구했다. 저녁 6시까지만 개장하는 5·18추모관을 관람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우리 일행은 추모관을 먼저 보고 신묘역 앞에 자리한 추모탑에 참배할 수 있었다. 국립5·18민주묘지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다. 추모관에 설치된 전시실에는 그 때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들과 신문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을 볼 수 있었다.

저녁을 먹고 적십자회관 수련원에 도착했다. 방배정과



짐을 풀고 저녁 10시부터 시작된 '청소년 말하는 5·18 게임'을 시작했다. 철저한 준비와 재미있게 진행해 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게임에 참여한 친구들도 공동체에 속하여 무척 재미있게 놀았다.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며, 하루의 피곤함을 날려 버릴 수 있었다. 이후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숙소에서 간단한 먹거리와 게임을 즐기면서 하루를 마무리 했다.

둘째날 아침, 7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출발하기 전 예측은 했지만, 정말로 비가 내린다. 무서운 기운이 감돈다. 이 역사캠프의 메인인 '청소년 문화제'가 걱정된다. 8시. 아침을 먹고 행사 준비 측에 전화를 했다. 아니나 다를까,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한다. 그래도 구도청과 금남로는 가야 할 것 같다. 학부모와 청소년들에게 이 사정을 미리 알리고 구도청 및 금남로를 가기로 결정하고 출발했다. 비가 오는 금남로는 30주년을 맞이하여 더 슬프게 우는 것 같다. 청소년들에게 구도청 및 금남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비웃을 입은 채 단체 사진을 찍고 담양 소재원으로 향했다.

비가 오는 소재원은 또 다른 운치가 있었다. 신록의 계절 오월에 비가 오는 소재원. 정말 잘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 소재원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준 최영래 선

생님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다. 소재원 앞에서 점심을 먹은 뒤, 고창 고인돌 박물관으로 향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라 많은 기대를 했는데, 실상 방문을 해 보니, 실망감이 더 많았다. 비가 와 야외를 관람할 수 없었으며, 대부분 유물이 복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동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래도 해설사 선생님의 교과서 수준의 해설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이제 1박 2일의 일정을 뒤로, 서울과 가평으로 향했다. 버스는 전날보다 덜 막혔지만, 그래도 많이 막힌다. 1박 2일 동안 참가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캠프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 역사캠프'에서 30년 전 광주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내년부터 역사캠프가 열리지 않는다. 이번 민주주의 역사캠프는 나에게 이 시대를 있게 해 준 모든 분들, 그 아름다운 꽃잎같은 존재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숙제를 준 캠프였다. (글·교육사업국 한만운)

## 🌀 <시민교육> 2호 발간



사업회 교육사업국은 정보지 <시민교육> 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집단적인 교육 활동을 '지역과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특집에, 자기계발적인 교육은 '치유로서의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기획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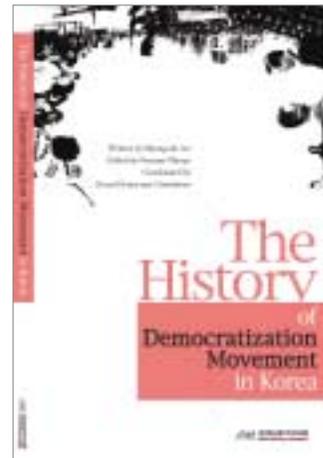
특집은 강대중(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의 '민과 관이 협력하여 배움이 꽃피는 마포', 김미란(전 희망제작소 연구위원)의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교육', 이희경(문탁네트워크)의 '마을, 공부와 삶이 되는 곳', 배옥병(사단법인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의 '지금의 라이프스타일을 되묻는 식환경 교육' 등 4편의 글을 실었으며, 알려진 사례라 하더라도 교육적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려고 했다.

기획은 고혜경(신화학자)의 '꿈작업을 통한 성찰', 이현경(인성교육 강사)의 '영성 발전을 위한 노동교육', 주은경(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부원장)의 '영상을 통한 치유 그리고 시민교육의 만남', 양은아(서울대 평생교육원 시민교양교육팀장)의 '인문학습과 시민교육'으로 꾸몄다.

그 외에도 우리 사회의 시민교육에 화두를 던져주신 도법 스님과 인터뷰를 '인물탐구'에,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시론'에,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교육을 일군 핀란드의 사례를 '세계의 시민교육'에, 주목할 만한 교육 관련 프로그램 3개에 대한 소개를 '시민교육의 현장'에, 교육 현장에서 활용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2개의 매뉴얼

을 '프로그램'에 담았다.  
<시민교육>은 반년간지로 서점에서 구입가능하다.  
(문의 : 교육사업국 02-3709-7622)

## 🌀 외국인을 위한 한국민주화운동사 발간



사업회가 한국 민주화 운동사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The History of Democratization Movement in Korea (한국민주화운동사)"를 발간했다. 이 책은 해방 이후부터 1987년 6월 민주화 까지

한국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과 역사적 사실, 그리고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심화 과정과 남겨진 과제들을 외국인들이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책의 초고는 '행동하는 양심' 상임이사이자 80년대 민청련과 민통련 등에서 활동한 이명식이 집필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이를 재정리했다. 감수는 1970~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 등 국제언론의 한국 주재 기자로 활동했던 노먼 소프(Norman Thorpe) 현 휘트워스대 겸임교수가 맡았다.

이 책은 비매품으로 한국 민주화운동에 관심 있는 해외 인사들에게 주로 배포될 예정이며 기념사업회 국영문 누리집(www.kdemocracy.or.kr)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문의 : 기념사업국 02-3709-7615)

## 🌀 5·18항쟁 30주년 학술토론회 개최



지난달 14일(금) 사업회 연구소 주최로 5·18민중항쟁 3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토론회가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렸다. "1980년 서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당시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수 참여해 1980년 시기의 민주주의와 민주화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분석하고 토론했다.

그동안 1980년의 민주화운동을 '서울의 봄'과 '광주항쟁'으로 설명해왔던 시점을 넘어서서 광주뿐 아니라 서울의 시각에서 1980년을 성찰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당시의 시대적 화두였던 '정의'의 문제를 시작으로 학생이나 정치인, 신군부, 언론, 그리고 헌법의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강신욱 변호사, 고승우 <미디어오늘> 논설실장,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신계륜 신정치문화원/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김재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조광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송석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표에 참여했으며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조성우 전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집행위원장, 김명인 황해문화 편집주간 등이 토론에 참가했다.

## 🌀 이동전시 운영



기념사업국은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이동 전시를 운영했다. 15일(토)에는 제11회 향산제를 맞이한 중산

고등학교에서 <다이내믹 한국현대사>를 전시했다. 이 전시는 처음으로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전시로 교사와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앞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19일(수)부터 25일(화)까지는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도서관) 앞 광장에서 <성대 민주화운동사> 전시를 진행했다. 1991년 5월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희생된 고 김귀정 열사의 추모기간에 맞춰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1980년대 성균관대의 주요 민주화운동과 김귀정 열사와 관련한 콘텐츠를 전시했다.

사업회는 한국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사진과 함께 설명한 전시콘텐츠 <다이내믹 한국현대사>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전시를 원하는 단체는 담당자(기념사업국, 02-3709-7614)에게 문의하면 된다.

## 활동가, 교육을 디자인 하다 - "2010 시민교육 활동가 아카데미" 안내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활동가들이 함께 배우고, 경험을 나누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손을 거두고 천안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연 제 : 2010년 6월 24일(목) ~ 26일(토)

어 디 서 : 천안 광덕산 환경교육센터(www.natureschool.or.kr)

누 가 : 시민교육 활동의 비전과 역량을 키우고 싶은 분 30명

공동주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후 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참가안내

◆ 모집기간 : 2010년 6월 15일(화)까지

◆ 참가비 : 5만원 (입급계좌 : 480-17-003566 농협 / (사)계승사업회)

◆ 문 의 : 042-489-2130 / 011-452-4284 | Email chpokdo@hanmail.net | 담당 김영화

### 아카데미 차림표

첫째날 (6/24)	13:30	도착 및 등록	
	14:00	마음열기 - "만나고 싶습니다." 소개 및 인사, 오리엔테이션	정 혁   청년평화센터 '푸름' 대표
	16:00	강의 - "활동가, 시민교육을 꿈꾸다" 시민교육의 철학, 교육활동가 리더십	곽형모   NGO교육포럼 공동대표
	19:00	연극워크숍 - "내가 생각하는 시민교육"	어연선   극단 '현장' 대표

둘째날 (6/25)	09:30	아침을 열다 - "이야기가 있는 감성충전"	임상환   청년평화센터 '푸름' 평화영상팀장
	10:00	경험공유 워크숍 - "시민교육, 멈추어 길을 묻다"	이은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교육활동가아카데미 기획위원
	13:30	강의 - "그것이 알고싶다, 교육기획" 교육기획의 이론과 실제	조철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문위원
	15:30	워크숍 - "내 손에 잡히는 교육기획" 교육기획 실습	이은숙
	19:00	공동체 놀이 - "놀며, 배우며" 쉽게 따라하는 공동체 놀이 체험	정 혁

세째날 (6/26)	09:30	아침을 열다 - "이야기가 있는 감성충전"	임상환
	10:00	강의 - "교육을 만드는 사람들과 교육실무" : 교육실무의 A to Z	서미화   볼런티어21 사업운영팀장
	13:00	마무리 - "다시 현장으로" 교육내용 종합, 참가자 평가	이은숙

## 6월항쟁 23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탈냉전과 한국의 민주주의" 개최

◆ 주 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일 시 : 2010년 6월 11일(금) 10:30~17:30

◆ 장 소 :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

◆ 일정표

개회식		등록, 개회
10:00 ~ 11:00	• 식전행사	등록 · 접수 (10:00-10:30) 6월항쟁 실록영상 상영
	• 개회사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취지소개	정근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 진행	김종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부소장
제 I 세션		<냉전과 탈냉전의 재조명>
11:00 ~ 13:00	• 사 회	정근식 연구소장, 서울대 사회학과
	• 발 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반공주의의 영향 김득중, 국사편찬위
	• 토 론	이영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발 표	헌법의 변화와 민주주의 차동욱, 동의대 행정학부
13:00	• 토 론	전광석, 연세대 법학과
	• 발 표	동아시아 냉전해체와 한국민주주의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 토 론	이삼성,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중 식		(13:00-14:00)
제 II 세션		<냉전과 일상생활>
14:00 ~ 15:30	• 사 회	이호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책임연구원
	• 발 표	냉전체제와 한국방송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 토 론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 발 표	냉전과 탈냉전 속 사람 이야기 김귀옥, 한성대 사회학과
15:30	• 토 론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휴 식	(15:30-15:50)
제 III 세션		<미래의 민주주의>
15:40 ~ 17:20	• 사 회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 발 표	안보와 자유, 민주주의 정일준, 고려대 사회학과
	• 토 론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 발 표	한반도 평화체제와 민주주의의 문제 김근식, 경남대 북한대학원
17:20	• 토 론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폐 회	정리발언

## 사업회 발간물 할인(무료) 제공

사업회는 민주화운동,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사업회에서 발간한 책을 교재로 이용하실 때, 할인(무료) 혜택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관련 자료를 좀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 할인(무료) 제공 기준

-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수업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로 5권 이상 주문시
- 독후감 대회 등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로 5권 이상 주문시
- 사업회를 방문해 책을 구입할 경우  
단, 사업회가 기획한 책자라 하더라도 출판권을 출판사에 부여한 경우는 제외

### ◆ 할인(무료) 제공 도서와 할인율

도서명	가격	할인/무료	발송비
시대의불꽃 시리즈(전 18종)	각 권6,500원	무료	신청자 부담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	8,700원		
민주발전지수(전 2종)	각25,000원		
역사다시읽기 (전 7종)	각 권3,500원	정가의 70%	사업회 부담
한국의 역사기념시설	15,000원		
세계의 역사기념시설	18,000원		
국가와 기억	23,000원		
민주주의강의 시리즈(전 3종)	각15,000원 / 13,000원 /		
1. 역사 / 2. 사상 / 3. 제도	17,000원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12,000원		
91년 5월 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10,000원		
한국자유민주주의의 전개와 성격	10,000원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10,000원		
1970년대 민중운동 연구	25,000원		
유신과 반유신	28,000원		

\*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기획홍보실 전화 02-3709-7536 또는 이메일 yangji@kdemo.or.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제24주년 인천5·3항쟁 계승대회



지난달 3일 오후 6시부터 인천 주안시 민공원 쉼터(옛 시민회관 자리)에서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의 주최로 열린 제24주년 인천 5·3항쟁 계승대회에 우리 사업회의 이인수 기념사업국장 등이 참석해 항쟁의 의미를 기렸다.

## 고 노희두 흉상 제막식



지난달 4일 12시 동국대학교 만해광장 동우탑에서 “4·19 혁명 민주열사 노희두 흉상건립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고 노희두 흉상 제막식에 우리 사업회 유영표 상임부이사장, 이인수 기념사업국장, 박문숙 사료관장 등이 참가해 열사의 뜻을 기렸다.

## 박형규 목사 회고록 출판기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을 지냈던 민주화운동의 원로 박형규 목사의 회고록 『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 출판기념회가 지난달 6일 오후 6시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있었다. 올해 미수를 맞이한 기념으로 추진된 박형규 목사의 회고록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박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평화재단의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사업회 함세웅 이사장 등 임직원과 민주화운동 원로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2010 광주인권상 수상자 사업회 방문



2010광주인권상 수상자 수실 파큐렐 (Sushil Pyakurel, 59세, 네팔)씨가 지난달 24일 사업회를 방문했다. 이날 사업회를 방문한 수

실씨 일행은 사업회 사료관을 둘러보고 유영표 부이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유영표 부이사장은 수실씨의 광주인권상 수상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사업회가 아직은 미진하나 앞으로 아시아 시민사회와 더욱 많은 협력과 연대를 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수실씨는 수상소감문에서도 언급했던 그의 오래된 동료 프라카스 까플레(Prakash Kaphley)를 기념하고 또한 민주주의 재단을 설립하는데 수상금을 사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사료관을 둘러보며 큰 관심을 보였던 수실씨는 향후 민주주의 재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회가 많은 지원과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수실씨의 사업회 방문은 짧게나마 양국의 민주화 투쟁 역사를 공유하고 나아가 더 많은 연대와 상호 협력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 서울 행사 진행



지난달 18일 5·18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서울기념식이 열렸다. 서울시는 5·18 제30주년 서울기념식을 허가했다가 행사개막이틀 전에 ‘추모는 안된다’며 허가변경을 통보하고 추모단 놓일 곳에 덧마루세트를 치우지않고 방치하는 등, 추모를 계속 방해해 5·18서울기념사업회 임원들이 5·18민주영령 유영과 향로를 지키며 침묵 시위를 하기도 했다. (사진·권우성)